



중국 경제성장률, 2012년 7%대로 하락 우려

왕양비 연구원

■ 최근 국내외 여러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이에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으로 보임.

- 유럽 재정위기의 아시아경제에 대한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 (Credit Suisse)투자은행, UBS워버그증권, 국제금융센터 등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2011년 4/4분기~2012년 2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%대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.
 - 크레디트 스위스투자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1년 4/4분기 7.5%로 하락하고 2012년 1/4분기와 2분기 각각 7.5%, 7.7%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UBS워버그는 중국경제가 2012년 1/4분기 7.7%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음.
-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세계경제 회복에 많이 기여한 중국경제는 정부당국의 경제부양책에 힘입어 9%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.
- 과거 10년간 평균 10.5%에 달한 중국 경제성장률이 8% 이하로 하락되면 글로벌 경기부진이 더욱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■ 수출부진,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,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위험, 은행 부실 등이 중국경제를 위협함에 따라 경기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됨.

- 유럽과 미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제수요부진이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일 것이며, 중국 국내총생산(GDP)의 2/3을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.
 - 베이징 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다 올 1~9월 중소형 제조 기업의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이에 2,889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75% 이상이 내년 상반기 이윤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휴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음.

- 또한, 중국정부의 부동산 과열 해소를 위한 긴축정책과 주택구매 제한정책에 따라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자금경색 및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.
 - 중국 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성수기인 9월 35개 1~2급 도시 중 부동산 거래량 감소폭이 30%(전년동월대비)를 초과한 도시가 13개, 20%(전년동월대비)를 초과한 도시가 7개에 달하였으며, 같은 기간 100개 주요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전월에 비해 0.03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이는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의 신호로 분석되고 있으며, 중국정부 직속 통신사인 산화사가 2011년 4/4분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함.
 - 또한, 올 상반기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의 부채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.3% 증가한 1.1조 위안(약 200조 원)으로 부채비율이 72.3%에 달하였으며, 이 중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동부채(Current Liabilities)는 53.9% 증가한 7,713억 위안(약 140조 원)으로 부채총액의 70.6%를 차지함.
 - 부동산 재고 급등과 매출부진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임.
 - 총 재정수입의 1/3을 토지매매 관련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 2010년 기준 부채규모가 국내총생산(GDP)의 1/4를 초과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동 정부의 재정수입 위축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으며, 이에 은행 부실대출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.
 - 뿐만 아니라,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 증가를 조장함.
 - 은행 대출 담보 중 90% 이상이 부동산과 연계된 자산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업 혹은 정부의 상환능력 부재 시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음.
 -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은행의 부실 우려를 반영하는 은행주 하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4대 은행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을 실시하였으나, 부작용 우려로 2008년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(2007년 중 GDP의 약 16%인 4조 위안, 약 726조 원)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.
- 세계경제 불황과 직결되는 중국 수출부진은 미국의 위안화절상 압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(신화사 10/04, 화신재경 10/10, WSJ 10/12, 연합뉴스10/12, 등)